

유청희 집행위원장

8월 28일, 한전KPS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인정,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재판의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여러 연대 단위에서 연속 기자회견을 열었고, 지난 8월 26일에는 연구소를 포함한 노동안전보건 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하청 노동자들은 한전KPS로부터 작업 지시를 직접 받았지만 하청이라는 딱지가 붙은 채 고용 불안, 생명 위협에 떨어야 했습니다. 한전KPS 하청 업체에서 16년 동안 일한 한 노동자는 그동안 회사가 15번 바뀌었다고 합니다. 작업 내용도, 작업장, 지시하는 사람, 작업복도 변하지 않았지만 회사 이름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하는 업무는 정규직과 비슷했지만 이들에게는 안전관련 인력도, 전문적인 교육이나 지원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판결을 앞두고 불법파견 인정을 받아 정규직으로 전환된 다른 현장 노동자들에게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아사히글라스 하청 노동자들은 작년 7월, 9년간의 소송 끝에 직접 고용되었는데요. 이들은 하청 소속일 때 터무니 없이 높은 생산량으로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렸고,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지적 당하면 붉은 조끼를 입게 해서 모멸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병원에 가기 어려웠는데, 정규직 전환 이후에는 치료를 받고 부담 작업에서 제외하며, 재해 발생 원인을 점검해 재발하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하청 노동자에게는 차별과, 모멸감, 수치심을 겪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지금은 노동강도, 노동시간, 휴게, 식사시간 등 모든 면에서 월등히 나아졌다고 합니다.

현재 노동자를 착취해 얻는 이윤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해결될 수많은 일을 다단계 하청으로 나누어 착취하고 위험을 가장 밑바닥 하청 노동자에게 미루는 이 현실, 바뀌야 합니다. 이 노동자들과 이야기하고 나니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노동자를 이렇게 나누는가? 차별과 산재 위험을 왜 어떤 노동자들에게 늘 도사리는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한전KPS 하청 노동자인 고 김충현과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과 삶을 생각하며, 이제 1심 판결에서 승소했으니 한전KPS가 어서 직접고용 할 것을,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과 재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